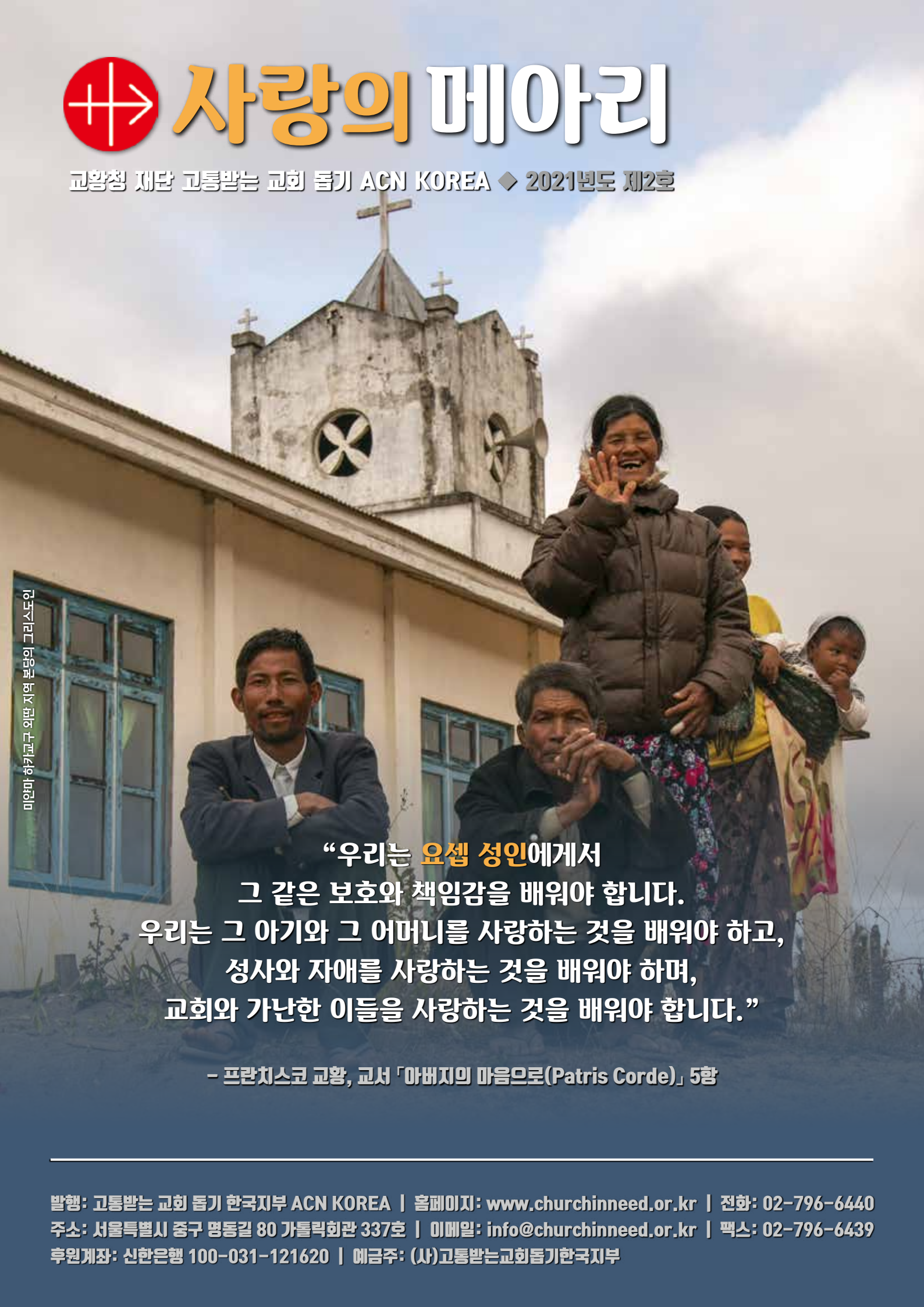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21년도 제2호



미얀마 쉬교구 외딴 지역 본당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요셉 성인**에게서
그 같은 보호와 책임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아기와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성사와 자애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Patris Corde)」 5항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 전화: 02-796-644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아이들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성 요셉에게 기도를 바치는
시베리아의 스타니스라바 수녀와 어린이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여전히 우리 모두를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제한들은 가차 없이 우리의 신경을 갉아 먹으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힘들게 만듭니다.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폭력을 야기하는 행동들로 인해 평화롭고 연대하는 공동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호적 가치 인정과 인권의 존중에 기반을 두는, 인류가 함께 번영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현저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전쟁과 탄압, 박해의 행위가 점점 더 광범위하게 고려됩니다. 게다가 하느님 없이 인간을 모든 것의 척도로 삼으려는 세속적 세상이 가하는, 이전보다 더 공격적인 억압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명과 하느님 아버지의 노고에 위배되는 교회 내의 방향성 분쟁들로 인해 이런 불편함은 더 커져 갑니다.

우리는 올해 이렇게 갑갑한 상황 속에서 부활 시기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님 부활의 힘을 느끼고 그 힘으로 이 시대의 어둠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힘은 아직 충분합니까?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전 세계가 1년여 전부터 코로나 위기의 극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놀랍게도 '성 요셉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시대는 경험이 많은 '위기의 경영자'를 필요로 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험난한 계획인 구원 사업을 위해 하느님께서 몸소 성 요셉을 선택하지 않으셨던가요? 가장 소중한 존재인 당신의 아드님과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께서 이 정의로운 남자, 솜씨 좋은 목수 요셉에게 믿고 맡기지 않으셨던가요? 성 요셉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양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지상에서 하느님의 대리인 역할을 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과 예언자들, 왕과 사도 그리고 주교,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남성이 그저 경탄하며 우러러볼 수 있는 '꿈 같은 출세'였습니다.

하지만 성 요셉 또한 큰 희생 없이는 위대한 소명도, 위대한 사랑도 없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마태 1,18) 약혼자가 다른 이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실존의 위기에 빠져 성 요셉은 침묵했고, 기도했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며 기다렸습니다. 성 요셉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로마 4,18 참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믿었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신앙에서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 요셉은 힘겨운 시련과 영적 투쟁의 시간들을 겪었으나 자신은 그저 사랑하며 섬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 요셉은 그리스도교가 가장 큰 찬사를 보내는 겸손한 사람들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훌륭하고 성실한 추종자가 되려면 위대한 것들이 전혀 필요 없고 다만 평범하고 소박하며 인간적인 덕들을 지니는 것으로 충분하며 또 그 덕들이 순수하고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을 삶으로써 입증한 사람입니다."라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말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큰 가치가 없는 덕들에 성 요셉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또 소박하게, 부드럽고 순종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 요셉은 사실 항상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분명 성 요셉도 우리처럼 자신의 약점들과 불완전성의 부담을 알고 있었지만, 성모 마리아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하루하루 희생적인 사랑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순수성을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는 끊임없이 힘든 요구이며 그와 동시에 가장 큰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성 요셉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항상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양아버지 성 요셉을 모든 곤경 속에서의 원조자로 삼으셨습니다. 성 요셉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청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께서 이 땅에서 양아버지의 말을 따랐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성 요셉이 청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안에서 부활의 빛이 빛나기를,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순종적인 사랑이 빛나기를 성 요셉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복되고 기쁜 부활절을 빌며 축복을 보냅니다.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부활 계란을 색칠하는 피상카의 어린이들

사랑하고 봉사하고 찬미합니다

사도적 권고 「구세주의 보호자」(Redemptoris custos)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교회의 수호성인인 성 요셉이 맡았던 "예수를 '키우는' 즉 먹이며 입히고 또 아버지의 임무들과 보조를 이루면서 율법과 상업에 있어 교육시키는 중요한 과업"을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성 요셉 수녀회 수녀들은 이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리스도교 신앙에 맞게 교육하며,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중요한 과업으로 여깁니다. 그리스 가톨릭 수도회인 성 요셉 수녀회의 카리스마는 '사랑, 봉사, 찬미'라는 세 단어로 응축됩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성심으로,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두 손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미하시는 입술로" 드러납니다.

종교 수업 중인 알로이시아 수녀와 학생들

성 요셉 수녀회는 우크라이나에서 학교 1개, 어린이집 3개와 유치원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텔리치에 있는 고아원 겸 어린이집 '피상카[1]'도 그중 하나입니다. 총 40명의 수녀 중 3명이 이곳에서 9명의 어린이와 함께 생활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낡아 썩은 창틀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눈비로 인해 건물 안에 계속 습기가 차면서 어린이들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낡은 주방도 열두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전기와 환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수리가 시급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성가정 안에서의 온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성 요셉이었다면 아마 이곳에서 벌써 목수로서 직접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ACN은 수녀들에게 건물 보수를 위해 약 1300만 원의 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1) 부활 계란

진정한 기적

그 지방의 이름은 '밀라그로[1]'이고, 산 하신토 데 야구아치 교구 내 거주지인 '치엔 카마스[2]'가 그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성체 조배 수녀회 수녀들에게 100개의 침대는 필요치 않습니다. 마리에트, 티시, 테레사, 이 세 명의 수녀에게는 침대 세 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에콰도르** 밀라그로에는 빈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처럼 작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은 원래 본당 사제 한 사람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아주 협소한 집입니다. 이제 새 사제가 올 것인데, 본당이 번영하고 규칙적으로 성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그가 그곳에 상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녀들이 집을 나가야 하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수녀들의 성소에 적합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숙소가 없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하느님 자비의 성당 옆에 준비된 부지에 작은 건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5개월이면 지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교구가 너무 가난하여 건설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ACN은 약 3300만 원을 지원하여 그 기적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녀들은 성체 안의 그리스도 경배와 선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수도회 카리스마를 더욱 훌륭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으로부터 회개와 용서, 화해라는 진정한 기적이 자라날 것입니다.

1) 기적 2) 100개의 침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들 다리우차 수녀와 그가 돌보는 아기

사회 변두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삶을 알기 위해서는 그 장소로 가야 합니다. 여성 수도자들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단지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고 그저 도와줍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비의 삶을 살아갑니다.

카메룬 하느님의 섭리 수녀회의 다리우차 수녀와 레지나 수녀는 20여 년 전부터 카메룬 깊숙한 곳에 위치한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시엥보트라는 이름의 이 마을은 열대 지역에 있고,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한 곳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사람들은 들판에서 구해 오는 것으로 생활합니다. 레지나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합니다." 이는 수도회 창시자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라는 모토에도 일치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정신으로 학생 수가 약 300명인 초등학교와 100여 명의 원생이 있는 유치원을 한 곳씩 설립했습니다. 또한, 청년 사업과 본당 일을 돕고 여성들을 위한 재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시엥보트의 사람들은 응급 처치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찾아갈까요? 바로 수녀원입니다. 그곳에서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에시엥보트의 소중함,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ACN은 수녀회의 요청에 따라 약 260만 원의 생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주사를 놓는 모습

레바논 바실리오 수녀회 은퇴 수녀 26명이 수도 베이루트 북부의 교외 도시 주크 미카엘에 있는 성모 영보 수녀원에서 생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크 미카엘은 그리스도인 도시로, 원래 수도회 본원이 있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은퇴 수녀들을 위한 집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교회에 봉사했습니다. 서서히 사그라지는 촛불과 같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빛과 온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자비심을 가졌고, 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이제는 수녀들이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자비심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휠체어와 보행 보조기, 목발, 집중치료 침대, 성인용 기저귀, 특히 약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재정 상태로는 여기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동료 수녀들 외에, 몸져누워 있는 쇠약한 수녀들을 밤낮으로 돌보는 15명의 간병인에게도 알맞은 보수를 주어야 합니다. 촛불은 아직 타오르고 있습니다. 수녀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다 타니오스 원장 수녀는 ACN이 그들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ACN은 간병 서비스와 의약품 및 보조 도구에 대한 비용으로 약 3900만 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수녀들은 모든 이의 자비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 생명의 촛불들이 때가 되기 전에 꺼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에시엥보트의 젊은이와 노인 모두가 레지나 수녀에게 의지합니다.

레바논 주크 미카엘 성모 영보 수녀원

인류애가 승리하도록

"복음의 정신이 충만한 여성들이 인류가 비인간적으로 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의 말처럼 여성 전체, 특히 여성 수도자에 대한 이 이야기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교황 교서들을 관통하며 이어집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회에 필수적인" 여성의 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직접 만든 묵주를 들고 있는 모습
"곧 부지런히 사용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수녀회인 자비의 딸 수녀회 역시 복음의 정신이 충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바로 인류애의 얼굴이며,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미소를 전합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 말루쿠에서 그 사람들은 우선 버려진 어린이와 고아, 몸을 누일 곳도 일자리도 없이 거리를 떠도는 미혼모들입니다. 라켈, 샬롯, 마리아, 알레한드리나, 이 네 명의 수녀가 수도회 카리스마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로아티아 출신인 수도회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마리아 페트코빅 자비의 집'에서 60명의 고아들을 돌봅니다. 낮 동안에는 본당 어린이 100여 명이 더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여기에서 급식을 받고, 더 중요한 영적 양식도 받습니다. 또한, 마리아 페르코빅 자비의 집에서는 젊은 어머니들이 나중에 더 쉽게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재봉사 교육을 제공합니다. 수녀들은 작은 진료소도 운영하며, 아픈 사람들을 위한 응급 처치를 담당합니다.

하느님의 미소가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기꺼이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청원자 선발은 엄격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수녀원에 자리가 부족하고, 게다가 모든 이가 수도 성소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자들은 먼저 프랑스어를 배워야 하고 또 정원과 가축도 돌봐야 합니다. 현재는 닭만 있지만 향후 돼지와 양, 염소 등도 기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작은 양어장도 계획 중입니다. 수도 공동체가 외부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본당의 어린이와 가정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고, 외곽 지역의 집들에서 인류애가 피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가축이나 생산물, 자원보다 더 큰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원에서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더 이상 수녀들을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이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녀들은 희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ACN은 약 780만 원의 생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로 인류애가 승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잠비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모든 지역을 통제하고,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더 이상 멀리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코로나19까지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모잠비크 교회가 특별히 여러 분야에서 체계와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서부 잠베지아 지역의 구루에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활동하는 카푸친회 수녀들의 감사 인사가 ACN에게 전해졌습니다. **수도회 수련자를 담당하는 마리아 누니스 드 소사 수녀는 많은 사목 활동과 양성 과정이 ACN의 생계 지원 덕분에 비로소 다시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많은 것을 중단시켰고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ACN의 생계 지원이 세상의 한구석에 있는 모잠비크 교회가 혼자가 아님을 보여 준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이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들의 소망과 감사입니다.

수녀들의 용기

휠체어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바치는 수녀들

성무일도를 바치는 마리아 호세파 수녀(93세)

봉쇄, 격리, 경제 마비, 사회적 거리 두기. 세계 각국의 코로나 대응 조치는 관상 수도회의 수도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지원, 즉 교류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전 세계의 치유를 위해 기도를 바칩니다.

로사리오의 마리아 수녀는 맨발의 가르멜회 **쿠바** 아바나 수녀원의 원장으로, 격리 기간 동안 ACN에게 서신을 보내며 필요한 것에 대해 알려 주었습니다. 우유, 빵, 비누, 약품, 소독제, 전화 및 전기료 등입니다. 수입과 관광 산업을 통해 어렵게 살아가던 이 나라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빈곤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국경이 폐쇄되면서 많은 물자가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며, 위생용품 부족으로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경제 활동의 중단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초 서비스의 부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을 할 수 없으며, 간호사의 방문이 불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전히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수녀들은 여기서 수도회 창시자이자 교회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대할 것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이들보다 관상 수도자들에게 더 큰 십자가를 보내십니다. 그들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처음 하시는 일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맨발의 가르멜회 수녀들은 이런 용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ACN에게 도움을 청하며 "너무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민족을 위해 이 위태로운 상황 한가운데서 자신들이 희망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ACN은 생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수녀들의 존재는 쿠바에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ACN 한국지부, 미얀마 교회를 위한 기도와 지원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자 폭력 진압과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미얀마의 시민들과 연대하는 가운데 ACN 한국지부 또한 기도와 지원으로 함께 합니다.

ACN 한국지부는 미얀마 쿠데타보다 앞서 2021년 1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이카우 교구의 본당 사제와 수도자, 교리교사들을 위해 3개월 치 기초 식량 지원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면서, 모든 절차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에 더 많은 분들께서 '미얀마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로 연대하여 주실 것을 청합니다.** CPBC가톨릭평화방송에도 공유된 이 기도카드는 2018년에 제작한 것으로, ACN 한국지부는 2018년 11월 이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서울대교구장)과 미얀마 현지를 방문하고, CPBC 가톨릭평화신문과 공동 기획으로 '미얀마 교회 돕기'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는 ACN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기도카드 링크

https://bit.ly/MyanmarPray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신다」

"「어린이 성경 -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신다」는 박해받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받는 첫 번째 책이면서, 일부 아이들이 평생 동안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그림책입니다."

글: 엘레오노레 베크 | 그림: 미렌 조르네 | 번역: 성찬성 | 196쪽 | 비매품

종교 서적 및 출판 지원은 매년 ACN의 전체 지원 사업 예산에서 약 2%를 차지하지만, 지원 대상이나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70년이 넘는 ACN의 역사 중에서도 특별히 오래도록 이어져 오고 있는 지원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이 「어린이 성경」입니다. ACN은 1979년부터 「어린이 성경」을 출판하여, 지금까지 191개 언어로 번역하고 5100만 부 이상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린이 성경」은 지난 2005년, ACN 한국지부가 설립되기 10년 전에, 당시 주한 교황대사였던 에밀 폴 체릭 대주교의 주선으로 가톨릭출판사를 통해 처음 한국어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 절판되었다가 2021년 부활 대축일을 시작으로, 드디어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의 이름으로 재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는 재출간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실 처음 우리말로 출판되었을 때는 성경에 담긴 하느님 사랑을 어린이들이 알아듣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출간은 우리나라 어린이들 마음 안에 당신 자녀를 위한 하느님의 말씀이 쌓여 가도록 하면서도 박해로 고통받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도 함께 같은 책을 읽어 하느님 사랑을 나누는 본래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활동하는 안토니오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ACN의 「어린이 성경」은 이곳 아이들에게 보물과 같습니다. 이 책 외에 달리 가지고 있는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이라는 것을 손에 들고 있는 행위 자체가 이곳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어린이 성경」을 통해 어린이들은 읽기를 배우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 지원 사업

1만 원으로, ACN 어린이 성경 1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CN 어린이 성경 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시는 분께, 어린이 성경(비매품) 1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 방법

보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1. 어린이 성경 후원금 보내기 (1만원 이상)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232450
예 금 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2. 입금 후 문자로 알려주기
ACN 공식 휴대전화: 010-7475-6440
예시: ①신청자, ②입금자명, ③수령 주소

3. 기도하며 선물을 기다리기

어린이 성경은 문자 접수 후 일반 우편으로 순차 발송되며, 약 1주일의 배송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느님 사랑과 자비!

"주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혹독한 추위의 겨울을 보내고 봄을 반기는 아이처럼 주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사순 시기를 보내고 부활을 지내면서 봄의 전령으로서 샛노란 꽃으로 무장한 '개나리'를 봅니다. 겨울잠에서 대지를 깨운 개나리를 보면서 수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한 달 전 모(某) 신문에 실린 개나리에 대한 칼럼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호주에 사는 교민 한 분이 향수병을 달래고자 고국을 다녀가면서 개나리 가지를 꺾어다가 자기 집 마당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어 개나리가 만개하기를 기다렸으나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땅, 맑은 공기, 그리고 좋은 햇볕 덕에 가지와 잎은 무성하였으나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는 호주에서는 개나리가 아예 꽃을 피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즉 뿌리가 일정한 저온 기간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춘화 현상'(Vernalization)을 마침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철 지나가는 자그마한 식물도 그토록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춥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야만 한다는 사실이 '희망'이야말로 '고통'과 암수한몸이라는 삶의 지혜를 갖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화제가 된 영화 '미나리'도 생각해 봅니다.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의 희망을 안고 미국에 이민 온 어느 한국 가족에 대한 영화 속에서 미나리는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물에서 자라는 나리'라는 뜻의 풀이지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아플 때는 약도 되는 미나리는 뿌리만 심어 두면 어디에서도 잘 자랍니다. 미나리가 이처럼 질긴 '생명력'을 갖게 된 것은 '흡수력' 때문입니다. 오염된 주변의 척박한 환경을 깨끗하게 바꿔 놓은 정화 식물로서 미나리가 온 힘을 다해 살아가려는 가족의 사랑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후원자 여러분!

부활 시기에 미나리와 개나리를 보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겪게 되는 고통을 이겨 낼 질긴 생명력과 희망을 함께 증거하는 데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난 3월 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라크를 방문하셨을 때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가 바로 니네베 평원의 그리스도교 도시인 '카라코시'를 가셨을 때입니다. 2014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다에시(IS)의 공격으로 성당과 집이 파괴되었으나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의 지원으로 재건한 성당 옥상에서 수녀님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문을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무장 경찰들에게 시위대를 향해 무력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무릎 꿇어 애원한 수녀님의 모습은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 이미 미얀마를 방문하셨던 교황님께서는 오랜 내전과 군부 독재로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분노와 복수가 아닌 사랑과 평화를 요청하셨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로마 6,3-4)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신비를 삶으로도 증언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고난의 세례와 마시게 될 죽음의 잔은 분명 부활의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부활의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바로 이 희망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로마 8,17.24-25 참조).

오랜 고통을 이겨내고 재건의 희망 속에 춤을 추는 이라크 가톨릭교회는 물론 사람을 살리고자 무릎 꿇는 고통을 인내로 받아들이며 군부에 맞서 자유, 민주, 평화의 희망을 간절히 바라는 미얀마 가톨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